

작은영화관 '진도아리랑 시네마' 개관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에 오는 20일 문열어 59석·39석 갖춘 최신식 2개 상영관 갖추어

'보배 섬' 진도군에 작은영화관 '진도아리랑 시네마'가 문을 연다. 진도군은 진도읍 동외리 무형문화재전수관 옆에 마련한 작은 영화관 '진도아리랑 시네마'를 오는 20일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작은 영화관은 각각 59석과 39석을 갖춘 최신식 2개의 상영관으로 로비에는 매점과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다. 영화관 관람료는 2D 5000원, 3D 8000원으로 시중가의 60% 수준이다. 설과 추석 명절 오전을 제외한

매일 전국 동시 개봉작을 상영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영화관은 진도 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에서 운영 노하우와 기술지원을 받아 군민들에게 최상의 영상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작은영화관 개관식은 군립민속에술단의 식전공연과 기념식, 영화 시사회 순으로 진행되며, 당일 무료 상영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오는 20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진도읍 동외리 무형문화재전수관 옆에 마련한 작은영화관 '진도아리랑 시네마'. 작은 영화관은 각각 59석과 39석을 갖춘 최신식 2개의 상영관을 갖추고 있다.

장흥군, 과학적 통계로 한우·표고버섯 육성

20일까지 조사원 현장조사·관련 산업 발전 기초자료 조사

장흥군은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1회 장흥군 특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의 '통계 표준 매뉴얼 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흥군은 지역 특산물 중 표고버섯과 한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특수통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표고버섯 재배 일가와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기본사항부터 생산자 조직, 판매, 유통에 관한 사항까지 수집한다. 특히, 지원이 필요한 교육 및 정책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 장흥군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장흥군 관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표고버섯을 재

배하거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의 면담을 통해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장흥군, 호남지방통계청, 표고버섯연합회, 한우연합회 등 민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정책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했다"며, "해당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장흥군 특산물실태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담당(전화 061-860-0214) 및 특산물실태조사 상 황실(전화 061-860-0864)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종민 기자

완도군, '복날엔 전복' 전복데이 개최

21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서 직판행사

완도군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에서 완도명품특산물인 전복 직판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전복유통협회와 함께 운영되며, 시중보다 20~30%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전복과 전복 가공품 뿐 아니라

전복요리 레시피도 선보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생선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직판행사를 통해 완도의 우수한 특산물을 홍보하고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완도군수, 국회의원,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세종시장, 소비자대표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군은 2014년부터 매년 삼복을 즈음해 무더위를 이기고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에게 전복 먹기를 권장하기 위해 '복날엔 전복, 전복데이'를 개

최하고 있다. 완도전복은 청정해역에서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라며 동외보갯에 피부미용, 지양강장, 허약체질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100여 종의 전복류가 있지만 완도산은 전복 중에서도 맛과 영양이 가장 으뜸인 참전복이다. 전복은 주로 회로 썰어 먹거나 구워 먹으며, 전복죽과 전복 삼계탕으로도 많이 먹는다. 무더운 한여름에는 전복해조류 비빔밥과 전복 불회로도 먹으며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장흥군 회진면 "행복한 정착 응원합니다"

상반기 전입·출산 7가구에 블루베리 화분 전달

장흥군 회진면(면장 손승현)에서는 올해 상반기 전입 및 출산가구 중 실제 거주 7가구에 블루베리 화분 전달하고 귀농·귀촌 및 육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에 따른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화분 전달은 2015년부터 이어온 회진면 특수시책으로 귀농·귀어·귀촌인 등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 더불어 사는 회진면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매년 꿈과 희망을 전하는 의미에서 귀농정책에서 성공한 귀농의 모델인 회진면 블루베리농장(대표 이승

화)의 블루베리묘목 기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화분을 전달 받은 김옥례씨 부부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격려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귀농을 생각하는 지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회진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승현 회진면장은 "귀농·귀어·귀촌인 등 전입세대와 신생아 출생가정에 첫인상의 좋은 추억이 지속되어 오랫동안 우리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무안군, 톱머리 해수욕장 인명구조 합동훈련 실시

민·관·경 신속한 인명구조 협업 체계 강화



무안군은 군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망운면 톱머리 해수욕장에서 이용

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관·경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이번 훈련은 민간인정관리요원,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무안소방서와 구명보트 1척, 구급차 등을 동원하여 해수욕장 유영구역 안전부표 부근에 익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익수자 구조훈련을 펼쳤다. 무안군은 이번 훈련으로 민·관·경의 신속한 인명구조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홀몸, 톱머리해수욕장을 지난 8일 개장하여 8월 15일까지 39일간 운영 할 예정이다.

여수시, 대규모 공공시설

전담할 'T/F팀' 운영해

여수시가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의 세밀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3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으로 '공공시설 T/F팀'을 설치하고 10일 하반기 정기인사 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T/F팀은 건축·전기·통신·기계 등 기술직 공무원 6명으로 구성돼 청소년 해양교육원, 이순신 도서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등 7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감독 업무를 맡게 됐다. 또한 앞으로 남종면 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을 전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